

“논의된 내용, 실제 변화되는 실천 중심 의회 만들 것”

광주시교육청, 고등학교학생의회 개원식·정기회 개최 의원들, 동아리 교류·경제·노무교육 확대 등 안건 논의

2026년 광주광역시고등학교학생의회 개원식 및 제1차 정기회가 지난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학생자치 활성화와 참여 중심 의회 운영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정기회에 앞서 전북도학생의회 대표들의 축하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어 학생의원들은 민주인권교육센터에서 사전 접수된 △동아리 중심 학교 간 교류 활성화 △경제 및 노무 교육 확대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방청석에는 고등학교 40여명이 회의를 참관하며 학생자치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 의원들은 ‘동아리 중심 학교 간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동아리 정보 공유와 학교 간 결연을 통한 정기 교류 등을 제안했다.

또 ‘경제 및 노무 교육 확대 방안’으로 기초 노무교육과 실생활 중심 경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주가·법률 교육 확대와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실천 방안도 건의했다.

김나영 고등학교의장은 “학생들이 다



2026년 광주시고등학교학생의회 개원식 및 제1차 정기회가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학생의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제공=광주시교육청

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의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내용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 실천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승복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교육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라며 “학생 의원들의 책임 있는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 제시를 기대하며, 교육청도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책으

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양출신 30세 청년 오선재씨, 7명에 ‘새 생명’ 선물

어머니 “아들과 약속 지켜” 장기기증 희망등록 참여도



전남 광양출신 30세 청년 오선재씨(사진)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7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가족은 고인의 생전 뜻을 지키기 위해 기증을 결정했고, 어머니는 직접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나눔을 이어갔다.

16일 한국장기조작기증원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월 6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해 총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8일 식당에서 발생한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수술 이후 잠시 의식을 회복해 어머니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남겼지만,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유가족은 고인의 생전 의사를 고려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오씨는 2남 1녀 중 맏이로, 어린 시절 아

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품에서 성장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컸던 그는 학창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보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배달, 화물 운전,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해 어머니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며 집을 마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어머니 최라순씨는 “그날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 마지막 순간 다른 생명을 살리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며 “아들의 뜻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은 밝고 책임감 있는 성격과 고인의 모습으로 기억했다.

오랜 친구 위성준씨는 “항상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들던 친구였다”며 “평소 장기기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만큼, 지금도 자신의 선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열 한국장기조작기증원장은 “고인의 숭고한 선택과 유가족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다”며 “생명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4일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상임이사, 전담팀 반원, 지역본부 안전관리 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농어촌공사,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

9개 분야 31개 과제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최근 나주 본사에서 김인중 사장, 상임이사, 전담팀 반원, 지역본부 안전관리 센터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전담팀은 공사 내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안전관리 체계 전

반을 살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 등 안전 저해 요인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특히 이번 전담팀에서는 외부 안전 전문가 자문과 내부 업무 담당자 의견 등 총 62건을 수렴·검토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담팀이 선정한 9개 분야, 31개 세부 과제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과제로는 공사감독 업무 배치 효율화와 안전보건대상 내실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확대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나주=조현찬 기자

조선대학교병원, 개원 55주년... 미래 100년 도약 다짐

조선대학교병원은 최근 개원 55주년을 맞이해 병원 의정관 5층 김동국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 강희숙 행정부총장, 최남규 병원장(사진), 임성훈 치과병원장을 비롯해 보직자 및 교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원 기념식은 김이수 이사장, 김춘성 총장의 축사와 최남규 병원장 기념사를 시작으로 케이크 커팅식, 교직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병원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는 총장 공로패(5명), 병원장 공로상(5명), 장기

근속상(136명), 모범상(17명) 등 시상 이뤄졌다.

최남규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이 개원 55주년을 맞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

며 환자 중심 진료와 공공의료의 책임을 이어나갈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 의료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새생명 건립을 통해 미래 100년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코레일 호남철도차량정비단, 소외계층 대상 ‘해피트레인’ 운영

장애인·보호자 60여명 초청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견학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 16일 지역 장애인과 보호자들을 위한 ‘해피트레인’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이 지역 장애인과 보호자들을 위한 ‘해피트레인’ 행사를 진행했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은 16일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서 장애인과 보호자 등 60여명을 초청해 자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피트레인은 한국철도공사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문화·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소외계층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엠마우스 보호작업장이 참여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정비단 직원들을 포함해 총 80명

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를 이용해 이동한 뒤 생태원 전시관 관람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열차 이동부터 현장 체험까지 이어진 일정 속에

참가자들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호남철도차량정비단 관계자는 “해피트레인은 단순한 여행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어울리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참

가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직원들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업관용품·장례지도사사무지원 062-369-4009.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물레나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예랑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ონსე (음력 3월 1일)

- 48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 60년생 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보인다
- 72년생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운이라
- 84년생 부질없이 힘만 허비하니 기다리라
- 96년생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라
- 51년생 자녀 마음까지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63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슬수를 조심하라
- 75년생 집안에 충실하면 비극일도 잘 풀린다
- 87년생 직업·직장 변동 조심할 필요가 있다
- 99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라
- 54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 한다
- 66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혀라
- 78년생 문서의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이 될 것
- 90년생 아이디어는 좋으나 헛수고에 그친다

- 49년생 가족에게 관심을 돌려 보라
- 61년생 지난 일에 집착 말고 새 일에 전념하라
- 73년생 양보하면 오히려 득이 될 것
- 85년생 사랑운이 좋은 시기
- 97년생 소신을 갖자
- 52년생 의견 충돌 예상되지만 지인 말을 따르라
- 64년생 거처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이 될 것
- 76년생 재수는 보통, 귀인의 은혜를 받게 된다
- 88년생 사업은 부진하니 부동산에 투자하라
- 55년생 아랫사람의 말을 멀리해도 좋다
- 67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껌뻍치 마라
- 79년생 감당할 만 하겠다
- 91년생 남자는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 50년생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격이다
- 62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 될 것이다
- 74년생 오락에 빠져 시간이나 돈을 허비한다
- 86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 98년생 남자와 말다툼을 주의하라
- 53년생 출생수명 한다면 만사기 순조로울 것
- 65년생 경쟁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위다
- 77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게 된다
- 89년생 뒷사람 밑에 상처를 입는 운
- 56년생 너무 좋은 기운이 귀하를 맴돌고 있다
- 68년생 가치 있게 활용하는 것도 잊지 말자
- 80년생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수 있다
- 92년생 생기발달한 판도가 조성되었다

- 59년생 문서가 오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
- 71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 83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하다
- 95년생 과도한 욕심은 귀하를 망치게 한다